

정진석 추기경, 모교 중앙고서 강연

전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8일 오전 11시 모교인 중앙고(서울 종로구 계동·교장 정창현)를 방문해 후배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중앙고는 개교 98주년(6월1일)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정 추기경을 초청, 재학생들을 위한 강연회를 마련했다. 정 추기경은 지난달 초 중앙고의 교우회보인 '계우회보'와 인터뷰를 통해 백순지 교우회장의 모교 방문 요청을 받아들여면서 모교 기념사업 기금으로 1천만원을 내놓은 바 있다.

윤순하, 日 애니메이션 주제가 부른다



일본에서 '소나'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겸 탤런트 윤순하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주제를 부른다.

1일자 일본 스포츠니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가수 윤순하가 8월 개봉 예정인 애니메이션 '극장판 머니먼 시공 속에서 추추는 하룻밤'의 엔딩 테마곡 '하러리 하러리(사뿐 훌쩍)'를 부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애니메이션 '머니먼'은 여성 취향의 연애 작품이며 윤순하가 부를 노래는 독자적으로 만든 신곡이지만 일본풍의 멜로디로 이 영화의 세계관과 맞기 때문에 엔딩 테마곡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한국인 입양아와 함께 아드보캇 전지훈련장 찾은 노르웨이 호프·먼케비 부부

“미래 ‘태극전사’에 모국 열정 심어줘야죠”

“지난 2002년에 한국인들이 보여줬던 열정과 하나 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일(한국시간) 닉 아드보캇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노르웨이 축구대표팀과 평가전 준비를 위해 노르웨이 오슬로 물레볼 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있는 동안 관중석에선 박안의 중년부와 동양인 꼬마 2명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선수들의 훈련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 한국 대표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보러 가고 플라사 함께 오게 됐다”며 “내일 한국팀을 응원하기 위해 응원준비를 할 겸 가족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았다”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마취과 의사인 먼케비씨는 특히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열정과 하나 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되살려주고 싶었다”며 “너희에게도 한국인의 열정적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경기장에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1일 한국 축구대표팀이 노르웨이 대표팀과 평가전 준비를 위해 몸을 풀고 있는 동안 관중석에서 노르웨이 출신의 의사 부부와 이들이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가 훈련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의 정체(?)는 노르웨이 출신의 의사 부부와 이들이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로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일부러 짤미 내서 훈련장을 찾았다.

입양아 피부색은 별개 “행복해요”

그럼 왜 이들 부부는 한국에서 아이를 두 명이나 입양했을까. 아버지 호프씨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열정적인 모습이 좋았다”며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입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한국팀 응원” 즐긴다

동갑내기 의사 부부인 에이나르 호프(42)씨와 베리 H.먼케비(여·42)씨는 8년 전 한국을 방문해 당시 2살이던 울리크 호프(10·한국명 이경찬)를 먼저 입양하고 연이어 생후 6개월이었던 한네 호프(8·한국명 최희영)를 노르웨이로 데려왔다.

그는 또 “노르웨이가 브라질과 평가전에서 이겼을 때 노르웨이 국민은 한국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지 않았다”며 “한국인들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호프씨는 특히 “아이들이 더 큰 한국을 방문시켜 조국에 대해 저 많은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며 “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 한국인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을까. 이에 대해 호프씨는 “아시 아예 어린이를 입양해 힘든 일은 전혀 없었다. 피부색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가

장 힘든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 자체다”고 웃음을 지었다. 한편 호프 남매는 이날 훈련이 끝난 뒤 대표팀 선수들과 사진을 함께 찍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낸 뒤 한국팀 훈련장을 준비를 하려고 종종 경기장을 떠났다.

박상원, 세계도서관정보대회 홍보대사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1일 중견 연구자 박상원(48) 씨를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조직위는 박씨가 이지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연가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공익 활동에 활발히 앞장선 점을 홍보대사 위촉 이유로 들었다.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세계 150여 개국 도서관 주요 인사를 비롯해 5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올 8월 20~24일 서울 코엑스(COEX) 일원에서 개최된다.

광주여대, 행복재활원 찾아 봉사활동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정원) 사회봉사단(단장 조인숙 교수) 50여명은 지난달 30일 광주시 학동 행복재활원에서 시설청소·말벗 되기·식사 수발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무용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무용단도 이날 살풀이와 창작 춤 등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댄스스포츠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차태현, 13년 열애 첫사랑과 결혼



동갑내기 작사가 최석은씨 배우 차태현(30)이 6월1일 오후 6시 W호텔 비스타홀에서 동갑내기 작사가 최석은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서울 서초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으로 지난 13년간 교제해왔다. 최씨는 차태현의 1집 타이틀곡 'I love you', 2집 타이틀곡인 'Again to me'와 'Love story'의 노랫말을 지었고 김장훈의 8집에 수록된 'I love you'와 영화 '연애소설' O.S.T에 수록된 '모르나오' 등 다수의 노래를 작사한 실력 있는 작사가다.

이날 결혼식은 동료 배우 홍경민의 사회로 진행됐고 축하가는 가수 김종국이 맡았다. 두 사람은 폴다브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서울 용산에 신집살림을 차린다.

윌리엄 왕자,獨 월드컵 잉글랜드 개막전 관전



영국 왕실 왕위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자가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독일 월드컵 개막 경기를 관전할 계획이다. 1일(한국시간) AP와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찰스 왕세자의 대변인은 윌리엄 왕자가 오는 10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06 독일 월드컵 B조 조별리그 1차전 잉글랜드-파라과이 경기를 관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왕자는 지난달부터 숙부인 앤드루 왕자에 이어 잉글랜드축구협회(FA)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윌리엄 왕자는 이날 경기장을 찾아 잉글랜드 팬 및 현지 고위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파라과이전은 윌리엄 왕자가 축구협회 명예회장으로서 처음 지켜보게 되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다.

“워드, 유명세 활용 혼혈아동 지원 축하받을 일”

美 가제트紙 ‘워드 도움의 손길 재단’ 설립 칭찬

미국 일간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31일 프로풋볼 영웅 하인스 워드가 자신의 유명세를 한국내 혼혈아동들을 돕기 위해 이용한 것은 진정으로 축하받을 일이라며 칭찬했다. 이 신문은 “구장밖의 승리자, 자신의 유명세를 한국 어린이 돕는 데 이용”이란 제하의 사설을 통해 “최근 유명한 과학자가 관련된 스캔들로 경악했던 한국인들은 워드에게서 그 업적에 전혀 논쟁의 소지가 없는 한 통표를 보았다”면서 워드가 혼혈인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한국에서 영웅과 같은 환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워드는 어머니 나라 사람들의 찬사에 아무 비관 없이 탐닉하기 보다는 한국인들에게 혼혈인, 즉 ‘twiggy’들을 낙인찍는 인종차별주의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피가 곧 운명’인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곧 워드”라고 말했다. 가제트는 “워드의 얼굴은 혈연중심적인 사회에서 성공으로 결부될 얼굴은 아니다”면서 “바로 이 점이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최악의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스토리에 끌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지역학회 부회장에



전의천 조선대학교수 선임 국제지역학회는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지역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학회로, 국제통상·어학·정치 분야에서 1천2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한 교수는 국제 e-비즈니스학회 부회장,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 조선대 지역사회발전연구원장 등을 맡고 있다.

내방

▲서범석씨(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 ▲이현정씨(호남대총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박전배(광주운병협회 회장)씨 장남 상훈(원주 MBC 기자)군 전익수(쌍학 대표)씨 장녀 정미양=3일(토) 낮 12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김현남씨 장남 양경완군 김판순씨 막내 박윤순양=4일(일) 오전 11시30분 광주 호성웨딩문화원 2층 해피홀.
▲서장석씨 장남 종민군 장상열(데미화랑 대표)씨 장녀 예준양=4일(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12층 리더스클럽.
▲고충석씨 장남 훈군 황영성(서양화가)씨 차녀 지은양=4일(일) 낮 12시30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호텔프리마 3층 그랜드볼룸.
▲정안석씨 장남 재호군 선병완씨 장녀 성희양=4일(일) 낮 12시

-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박형순씨 차남 김기현군 주선자씨 3녀 시경리양=4일(일) 오후 1시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알림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062-223-919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족폭력상담소 무료상

- 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동창·동문회
▲광주·전남 영암구림초교 제 58회 전반기총회=3일(토) 오후 5시 산천문화토리 진흥구이 223-5165
▲전남대 간호대 동창회 정기총회=3일(토) 오후 4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다이아몬드홀.
▲광주지산초교 제 38회 동창회(회장 최중재) 모임=3일(토) 오후 7시 무등골. 011-620-5729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총동문 가족한마당=4일(일) 오전 10시 대운동장. 011-9622-9707
▲조대부고 제 23회(회장 조철호) 체육행사=4일(일) 광주충효분교

- 운동장. 017-601-1303
▲광주 사대부중 제 4회(회장 전성수) 동창회=4일(일) 오후 7시 이가식당.
▲재광 목포 공립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성기) 정기총회=8일(목) 오후 6시30분 상록회관 4층. 682-7766
중친회
▲진양(진주)하씨 광주 회수회(회장 하준택) 월례회=3일(토) 낮 12시 빅마트 중앙점 중친회 사무실.
▲연안차씨 중친회(회장 차호철) 광주전남 지부 정기총회=3일(토) 오전 11시 신성식당 232-0177
▲나주임씨 광주회수회(회장 임석민) 정기총회=4일(일) 오전 8시 구 전남도청 앞 출발.011-419-6593

향우회

- ▲재광 영암군 향우회 제 57회(회장 박임전) 정기총회=3일(토) 오후 4시30분 메리어트웨딩홀. 011-604-8843
▲재광 곡성군 삼기면 향우회(회장 김재정)=4일(일) 오후 7시 두암동 예술영양물숯밥 266-5566
▲재광 화순군 향우회(회장 조기선) 정기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10일(토) 오전 11시 금호생명빌딩 컨벤션홀 3층.
모집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인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홈션·커피·커피·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족공예 등, 광

- 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성춘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부음
▲김옥순씨 별세 전준후·준영·준태·준현(한국디자인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준기·준세·준성씨 모친 상 조규열·송광민씨 빙모상=발인 3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515-4488
▲승광옥씨 별세 최인환·성환·두환·은숙·현명·현옥·미경씨 모친상 조병제·강한오·김양근·강홍식씨 빙모상=발인 3일(토) 무진장례식장 501호 382-4444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호천)
대표: (062) 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특별분양
☎ (062) 521-1100